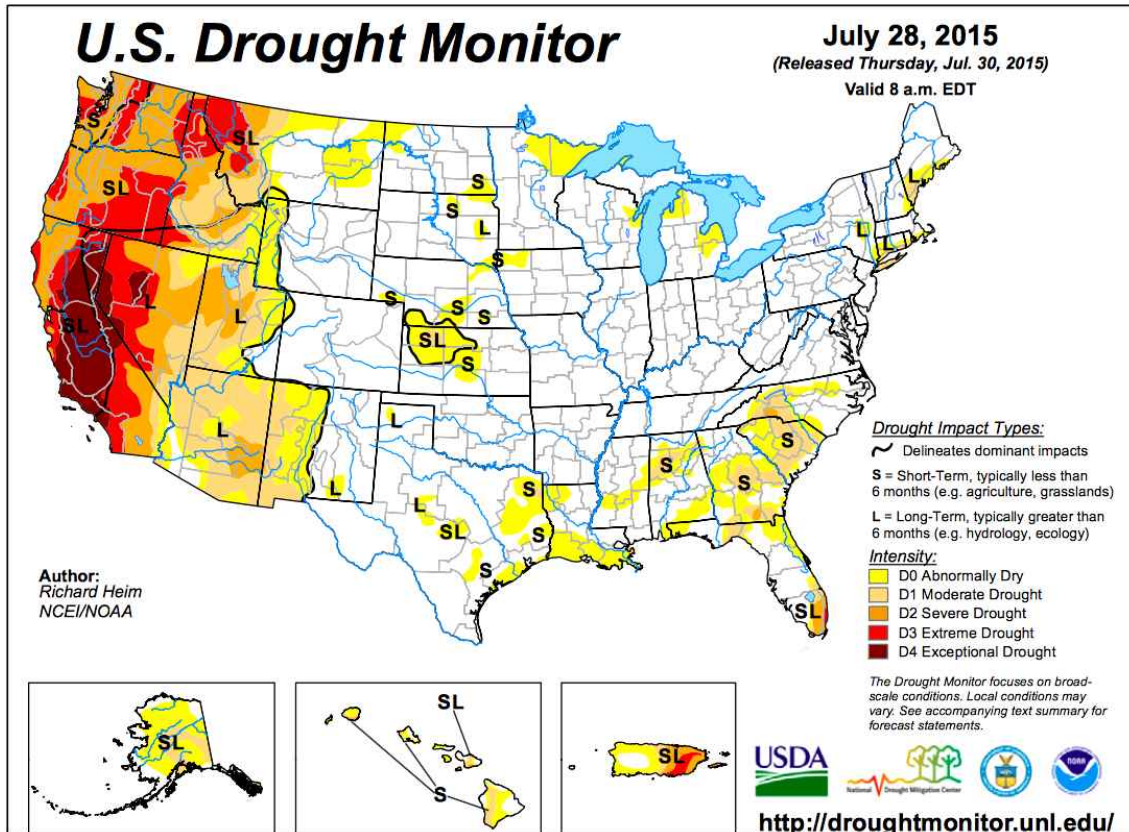


8월 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31)

□ 미국 기후 현황(7/26~8/1)



몬타나 중부와 북동부, 로키산맥 남부 및 인접한 평원과 옥수수 지대 서부 등에는 강한 비가 내렸고,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다. 걸프 연안 일대 등에도 비가 내렸지만,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중서부 지역은 옥수수 생장에 매우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텍사스 북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그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 걸프 연안 서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0°F 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 밖의 서부 지역에서도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산불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내륙 산간의 서부 지역에서는 서늘한 날씨를 보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5°F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이기도 했다.

## □ 농업 현황 요약(7/27~8/2)

대륙 전역에 걸쳐 평년수준의 비가 내렸다. 아이오와와 미주비 북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2인치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동부와 태평양 연안 일대에서는 평년보다 6°F 이상 기온이 높은 날도 있었다. 이와 달리 로키산맥 일대와 미주리 북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6°F 이상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 ■ 옥수수

8월 2일 기준 출사기(silking stage)가 끝난 지역의 비율은 약 90%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p 앞서고 있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약간 앞선 상황이다. 다코타 북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지난 한주간 출사기 도달 비율이 30%p 이상 증가했다. 호숙기(dough stage)에 도달한 비율은 29%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2%p 뒤쳐진 상황이다. 18개 주요 옥수수 재배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호숙기에 이른 면적 비율이 직전 5년 평균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는 같은 수준이며,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3%p 낮은 수준이다.

### ■ 겨울밀

8월 2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93%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4%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8%p 앞선 상황이다.

### ■ 면화

8월 2일까지 총 재배지의 92%에 해당하는 지역이 스퀘어링 단계(squaring stage)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는 2%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2%p 뒤쳐진 상황이다. 대평원 일대에서는 지난 한주간 스퀘어링 단계에 진입한 비율이 10%p 증가했다. 북부 평원지대에 에드워드(Edwards) 대평원에서는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어 면화 성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면화 송이가 형성된 비율은 57%인데,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8%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7%p 뒤쳐진 상황이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7%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는 동일한 수준이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4%p 높은 수준이다.

### ■ 쌀

8월 2일 기준 전국 출수율은 63% 수준이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16%p,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는 4%p 앞선 상황이다. 루이지애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성숙기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텍사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출수율이 평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응답자의 70%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보다 1%p 증가하였지만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뒤쳐진 수준이다.



## □ 세계 기후 현황(7/26~8/1)

■ 유럽: 남부에서는 지난 한달간 이어졌던 가뭄과 더위 끝에 비가 내리고 시원한 날씨가 찾아왔다. 더위는 스페인 남부 지역에만 국한되었는데,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3°C까지 오르기도 했다. 반면, 스페인 북부의 카스티야 이 레온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이하에 머무는 등 지난주보다는 시원한 한주가 되었다. 지난 한주간의 시원한 날씨로 인해 작물의 생산량에 대한 우려는 다소간 사라졌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5°C 이상 오른 날이 18일, 서르비아 북부에서는 13일, 헝가리와 프랑스 남서부 등에서는 9일을 기록하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과 독일, 폴란드 등에서는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겨울밀 수확 작업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부 및 남부 일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치솟았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동부 곡창지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8°C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그밖의 지역에서는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온도인 35°C보다는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반면, 러시아 남부의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인 Krasnodar Oblast에서는 3일 연속으로 낮 최고기온이 37°C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Krasnodar와 Rostov에서는 지난 7월 중반까지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7월 24일부터 8월 3일 사이 낮 최고기온이 35°C이상 치솟은 날이 11일 가운데 8일이었을 정도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중부 일대에서는 한냉전선의 영향으로 10~75mm의 비가 내렸다. Volga 지역과 남부 일대에서는 가뭄이 이어졌고, 강한 햇빛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동아시아: 중국 양쯔강 일대에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일부 지역이 침수되기도 했지만, 이번 비로 인해 Liaoning과 Shangdong 일대에서 일시적으로 기승을 부렸던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도 했다. 북한 일대에서도 장마 전선으로 인해 비가 내렸지만, 강우량이 10~25mm에 그쳐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했다. Heilongjiang 서부 옥수수 재배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중북 북부 평원과 Yangtze 협곡 일대, 남중국 등에서도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기온도 평년보다 1~3°C 정도 높은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태풍 하롤라가 주 초반 소멸되었고, 비도 거의 내리지 않았다.

■ 호주: 서호주 일대에는 매마른 땅을 흠뻑 적실만한 비가 내려 지난 한주간 이어졌던 건조한 날씨로 인한 가뭄이 해소되었다. 서호주 일대에 내린 비의 양은 25~75mm였으며, 특히 북부 밀 재배지역에 집중되어 이 지역의 가뭄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남호주와 빅토리아 북부,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 중에서도 산발적으로 5~25mm의 비가 내렸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와 비가 오는 날이 이어졌으며 농작물 생육에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밀 재배지역의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C정도 높았다.

■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비가 내려 겨울작물 생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 Santa Fe, Buenos Aires 동부 등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La Pampa와 Cordoba서부 등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북부이 면화 재배지역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중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5~6°C 정도 높았으며, 북부지역에서도 6~8°C 높은 날이 많았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7월 30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89%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78%보다 11%p 앞선 상황이고, 밀의 경우 수확률이 94%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p 앞섰다.

■ 브라질: 남부 곡창지대에서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밀의 생육에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Rio Grande do sul 북부와 Matto Grosso do sul, Sao Paulo 등에서는 지난 7월 한달동안 평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남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3~6°C 높았다. Parana에서도 맑고 화창한 날이 이어졌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7월 27일 기준 Parana 밀 지배지역 일대에서 개화기에 도달한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중보 내륙에서도 맑은 날이 이어졌고, 북동부 연안 지역에서는 10~50mm의 비가 내렸다.